

[제목: 루미의 반짝이는 용기] 대본

#1. 요정 마을(밤) - 30초

(낮)[지문] 노을빛이 발강게 물든 평화로운 요정 마을. 요정들이 각자 날개 주머니에 무언가를 담으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. **내레이션**(다정한 목소리로) 요정 마을에는 일 년에 한 번, 별가루를 뿌려 서로를 축복하는 예쁜 축제가 열립니다. 착하고 성실하게 지낸 요정들만이 이 반짝이는 별가루를 선물로 받을 수 있죠. [지문]소심해 보이는 루미가 조심스럽게 걸어 나온다. 루미의 날개 주머니는 이미 별가루로 가득 차서 영롱한 빛을 내고 있다. **자막**:소심하고 겁 많은 루미 요정, 1년 동안 열심히 별가루를 모음 **루미**(그늘진 숲 입구를 바라보며 걱정스럽게 혼잣말) "안 돼! 그 별가루를 한 번이라도 뿌려버리면 다 사라질 텐데, 그걸 모으려고 꼬박 1년이나 고생했잖아!" 이 예쁜 별가루는 어두운 곳에서 뿌려야 훨씬 반짝이고 예쁘게 보일 텐데... (몸을 움츠리며) 하지만 저 숲 안은 너무 캄캄해서 무서워.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.

#2. 마을 놀이터 (밤) - 30초

[지문]화면이 전환되어 시끌벅적한 놀이터를 비춘다. 포포가 '무지개 구슬'을 공중에 던지며 신나게 놀고 있다. **포포**(신나서 외치며) 우와! 내 무지개 구슬 좀 봐! 제일 높이 던져야지! [지문]포포가 구슬을 너무 높이 던진 나머지, 구슬이 손을 빗겨나가 땅에 떨어진다. 구슬은 데구루루 굴러 루미가 서 있는 어두운 숲 입구 안쪽으로 사라진다. **포포**(당황하며) 앗! 내 무지개 구슬! 안 돼!

#3. 숲 입구 (밤) - 40초

루미와 포포

[지문]포포가 숲 입구까지 달려오지만, 숲 안의 어둠을 보고 겁이 나 멈춰 선다. 포포는 제자리에서 발을 동동 구르다 결국 울음을 터뜨린다. **루미**(포포에게 다가가 조그만 목소리로) 포포야, 안녕... 왜 울고 있어? **포포**(흐느끼며) 흑흑, 루미야... 내 소중한 무지개 구슬이 저 숲으로 들어갔어. 하지만 나는 빛나는 별가루가 없어서 앞이 하나도 안 보여. 이제 구슬은 영영 못 찾을 거야! [지문]루미는 슬퍼하는 포포와 자신의 반짝이는 별가루를 번갈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진다. 화면이 점점 어두워지며 루미의 마음속으로 들어간다. (페이드 아웃)

#4. 루미의 내면 (몽환적인 배경) - 30초

[지문]현실과는 다른 반짝이는 공간. 루미의 머릿속에 두 가지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. **예쁜 마음 소리**루미야, 포포가 저렇게 슬퍼하잖아. 너한테는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별가루가 가득하잖아. 그 빛으로 어둠을 비추면 구슬을 찾을 수 있어! **미운 마음 소리**안 돼! 그 별가루를 모으려고 꼬박 1년이나 고생했잖아. 게다가 저 캄캄한 숲에는 무서운 괴물이 살고 있을지도 몰라.

그냥 도망쳐!

#5. 숲 입구 (어린이 참여 유도) - 50초

[지문]다시 현실. 루미가 숲 입구에서 겁에 질려 떨고 있다. **예쁜 마음 소리**(시청자를 향해 간절하게) 어린이 여러분! 루미가 용기를 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! 숲속 어둠이 멀리 사라지도록 입을 크게 벌리고 '후~' 하고 불어주세요! **[화면 효과]**아이들이 바람을 부는 효과음과 함께 숲 주변의 안개가 걷힌다. **예쁜 마음 소리**자, 한 번 더! 루미의 날개가 힘차게 펴지도록 큰 소리로 주문을 외쳐주세요! "별! 별! 무지개 별!" **[지문]**아이들의 응원 소리가 들리자, 루미의 날개가 조금씩 펴지기 시작한다. 루미가 주먹을 꼭 쥐고 숲으로 첫발을 내디딘다.

#6. 검보라색 숲속 - 40초

[음향]으스스한 바람 소리와 기분 나쁜 그림자들의 웃음소리. **[지문]**숲속은 온통 검보라색이다. 루미는 무서운 그림자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아 몸을 잔뜩 웅크린다. **루미**(덜덜 떨며 주저앉으려 한다) 너무 무서워... 그냥 돌아갈까?

#7. 클라이맥스 (어린이 참여 유도)- 60초

예쁜 마음 소리루미가 다시 겁을 먹었어요! 친구들, 아까보다 더 큰 목소리로 주문을 외쳐주세요! "별! 별! 무지개 별!!" **[음향]**과광-! (샤라랑~~ 신비롭고 거대한 마법 효과음) **[화면 효과]**아이들의 함성이 커짐과 동시에 루미의 날개에서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무지개 빛이 뿜어져 나온다.

[지문]"루미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발을 내딛자, 주머니 속의 별가루가 줄어들기는커녕 전보다 훨씬 눈부신 무지개 빛을 뿜어내며 숲 전체를 감싼다."

#8. 숲속 (변화된 풍경) - 20초

[지문]빛이 닿는 곳마다 검보라색 어둠이 사라지고, 그 자리에 예쁜 꽃과 노래하는 새들이 나타난다. 숲은 더 이상 무서운 곳이 아니다. **루미**(놀라며 주변을 둘러본다) 우와... 숲이 이렇게 예뻐다니! **[지문]**빛나는 꽃들 사이에 떨어져 있는 무지개 구슬을 발견한다. 루미가 구슬을 소중히 품에 안는다.

#9. 숲 입구 (재회) - 30초

[지문]루미가 당당하게 숲을 걸어 나온다. 기다리던 포포가 루미를 발견한다. **루미**포포야, 여기 네 무지개 구슬이야! **포포**(감격하며) 우와! 정말 고마워, 루미야! 너는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요정이야! **[지문]**포포가 루미를 꼭 껴안고, 두 요정은 행복하게 웃는다.

#10. 하늘 (엔딩) - 30초

[화면 효과] 루미가 날갯짓을 할 때마다 주머니 속의 별가루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, 오히려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며 온 마을을 무지개색으로 물들인다.

[내레이션] (다정하고 깊이 있는 목소리로) 루미는 별가루를 써버리면 영영 사라질까 봐 무서웠어요. 하지만 이제 루미는 알게 되었답니다.

별가루는 소중히 아껴두기만 할 때보다, 누군가를 돕고 싶은 예쁜 마음과 용기를 만날 때 비로소 줄어들지 않는 영원한 빛을 낸다는 것어요.

어린이 여러분도 마음속에 별가루 하나씩을 품고 있나요?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를 내보세요. 그럼 여러분의 별가루도 루미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비춰줄 거예요.